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청년농업인 소통협의체 출범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6.03.26 14:44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가 26일 청년농업인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순창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김민수)가 관내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순창지사는 이날 지역 청년농업인을 초청해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순창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관계기관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 제시 등이 이어졌다.

특히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농초기 자금 부족을 비롯해 경작농지 확보의 어려움과 농지은행사업 이용절차 간소화 등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이 논의됐다. 순창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여러 지원을

시행해왔다.

실제 지난해 농지은행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전체 367 농가에 156ha를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가운데 53명의 청년농에게 32ha를 지원하며 호응이 컸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용 농지임대사업 ▲농지매매지원사업 ▲선임대 후 매도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의 예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지 확보 등 초기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는 게 순창지사 측의 설명이다.

김민수 순창지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면서 "청년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갈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창=우기홍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순창=우기홍 기자